

#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영인, 김정미\*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to Employment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Young-In Han, Jeoung-Mi kim\*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및 취업전략 정도를 확인하고 각 변수들간의 상관성 및 취업전략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서술적 조사연구로 설계되었다. 자료수집은 G시의 일개 간호대학교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221명의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구조화된 자가 설문지를 통해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및 취업전략을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평균점수는 2.11±.34점, 대학생활적응 평균점수는 3.47±.67점, 취업전략 평균점수는 3.24±.56점이었다.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 ( $r=.437, p<.001$ ), 건강증진행위와 취업전략 ( $r=.536, p<.001$ ),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전략 ( $r=.615,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행위, 환경변화적응,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9.7%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취업전략은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개발과 반복연구, 교육과정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health promotion behaviors,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employment strategies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September 30, 2017 using a structural questionnaire, which was completed by 221 nursing students in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sion 22.0. The mean scores were as follows: health promotion behaviors, 2.11±.34; university life adaptation, 3.47±.67; employment strategies, 3.24±.56. A posi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 $r=0.437, p<0.001$ ),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employment strategies ( $r=0.536, p<0.001$ ),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employment strategies ( $r=0.615, p<0.001$ ).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ategies of the study participants were university life adapta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health conditions, which explained about 49.7% of the total.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employment strategies were correlated with promotion behavior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curriculum, program development and repeat research to improve health promotion behaviors,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employment strategies.

**Keywords** : Employment, Employment Strategies, Health Promotion Behaviors, Nursing Students, University Life Adaptation

\*Corresponding Author : Jeoung-Mi kim (KAYA Univ.)

Tel: +82-55-330-1087 email: kimjeoungmi66@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8, 2017

Accepted March 9, 2018

Revised (1st February 9, 2018, 2nd February 26, 2018, 3rd March 7, 2018)

Published March 31,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시기는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시작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흡연,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량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행위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1]. 대학생들은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이나 건강행동은 성인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2]. 간호학과 대학생활적응은 예비간호사로서의 간호대학생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달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능력 있고 높은 임상현장적응력을 갖춘 신규간호사의 배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3].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경험하며 직면하게 될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4]. 일부 간호대학생 중에서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취업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수업으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 겪고 있으며[5],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여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담당할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6].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에 건강 관련 지식과 교과 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행위를 재확립이 가능한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정착된 건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삶과 수명연장, 취업활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예비간호전문직 일원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유지, 증진, 질병예방과 고통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간호수행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건강증진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어 주는 과정이며, 최적의 건강상태를 향하여 자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과학이며 예술’이라 정의한다[7]. Pender[8]은 건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진 안녕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및 개인적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으로써 인간의 활성화 경향의 표현[9]이라 하였다. 건강증진행위는 건

강한 생활양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서 자신의 안녕수준을 높이고 자아실현과 자기 만족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 행위이다[9]. 건강행위의 분류는 자아실현, 건강책임, 운동, 영양, 대인간의 지지, 스트레스 총 6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10]. 건강증진행위의 범주는 대학생들이 지켜야 할 건강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11]. 간호증진행위는 최적의 건강상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자신과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안녕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으로 돕는 과학이며, 예술이므로 건강증진행위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간호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는 대학생활 속에 건강증진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과 관련된 학점관리, 대인관계, 부모와 격리, 새로운 교유관계형성 등이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취업전략이라 함은 취업과 전략의 합성어로서 전략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해볼 때, 취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 계획, 동원, 조직 등의 방략과 승부를 위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2]. 대학생에게 있어서 취업전략이란 대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한 후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수립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며 치밀하고도 정확한 준비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13]. 취업을 위한 계획단계부터 시작하여 취업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취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14], 특히 간호대학생의 취업전략은 입학과 동시에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 간호사 핵심역량 및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과정 중에 취업과 관련된 취업탐색, 취업계획, 취업선택, 취업달성 등의 제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생 생활적응과 관련된 지도와 건강증진행위와 취업전략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15], 마음챙김[11], 건강상태[16], 건강상태 인지 변화[17], 등이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18], 스트레스 대처방식[3]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취업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졸업학년 간호학생

의 간호전문직태도와 취업전략이 핵심기본간호술 교육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19],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간호전문직관, 취업전략[20] 등이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가능성 인지[12], 셀프리더십[13]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간호대학생의 취업전략을 확인하여 간호학생들이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고 취업전략을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취업전략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간의 상관관계는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및 취업전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G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재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Cohen 공식에 따라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수 15가지로 하였을 때 19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율 15%를 고려하여 총 230부를 배부하였으며, 224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부적절한 3부를

제외한 221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는 설정한 대상자수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Sechrist & Pedner[10]가 개발한 도구를 Seo[21]가 우리 문화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7문항으로 5영역(건강책임 10문항, 대인관계지지 7문항, 운동 및 영양 12문항, 스트레스 관리 7문항, 자아실현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eo[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0$ 이었고, 건강책임 .81, 대인관계지지 .82, 운동 및 영양 .79, 스트레스 관리 .73,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0$ 이었고, 건강책임 .87, 대인관계지지 .83, 운동 및 영양 .79, 스트레스 관리 .83, 자아실현 .82이었다.

### 2.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eong과 Park[22]이 개발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사회적 현실과 문화를 반영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5영역(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대인관계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g과 Park[22]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sim .86$ 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하부요인의 신뢰도는 학업활동 .88, 진로준비 .85, 개인심리 .88, 대인관계 .85, 사회체험 .83이었다.

### 2.3.3 취업전략

취업전략은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17]를 토대한 취업전략 측정도구를 Lee[13]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5영역, 하위영역 8영역으로 취업계획(6문항), 정보탐색[자신탐색(4문항), 정보수집(4문항)], 경력개발(3문항), 관리행동[시간관리(4문

항), 학적관리(3문항), 이미지관리(4문항)], 적극적 행동(6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항상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1점 에서 5점 척도로 ‘항상 그렇게 느낀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전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취업계획 .82, 정보탐색(자신탐색 .84, 정보수집 .80), 경력개발 .75, 관리행동(시간관리 .81, 학적관리 .65, 이미지관리 .67), 적극적 행동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취업계획 .82, 정보탐색(자신탐색 .85, 정보수집 .82), 경력개발 .72, 관리행동(시간관리 .86, 학적관리 .75, 이미지관리 .78), 적극적 행동 .91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고,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총 230부를 중 224부가 회수되었고, 설문내용이 미흡한 3부를 제외한 221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목적이 외에 사용하지 않음을 알렸다. 개인적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문지와 동의서를 수집 즉시 분리 보관하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설문조사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취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221명으로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148명(6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18세~28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19.82 \pm 1.28$ 세였고, 20세~22세 111명(50.2%)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 106명(48%)가 가장 많으며, 학년은 2학년 111명(50.2%), 1학년 89명(40.3%)이었다. 용돈은 2만원~305만원이었으며, 평균 용돈은  $41.26 \pm 38.25$ 만원이었고, 31-50만원이 80명(36.2%)이 가장 많았다. 거주하는 장소는 자택 90명(40.7%)과 기숙사 86명(38.9%)이 많았다. 부모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았다가 102명(46.2%)과 조금 있다가 89명(40.3%)이 많았으며,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보통 102명(46.2%)이 많았고, 건강증진행위가 건강의 유익성은 조금 유익 105명(47.5%)과 매우 유익 74명(33.5%)이 많았다. 건강증진행위 실천 어려움은 거의 어려움이 없음 90명(40.7%)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변화에 적응을 잘함 105명(47.5%), 매우 잘함 47명(21.3%), 보통 35명(15.8%), 적응을 못함 28명(12.7%), 적응하기 곤란함 6명(2.7%)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1)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73(33.0)
	Female	148(67.0)
Age(yr)	≤ 19	94(42.5)
	20-22	111(50.2)
	23-24	11(5.0)
	25 ≤	5(2.3)
Min 18	Max 28	Mean±SD 19.82±1.28
Religion	Christian	38(17.2)
	Buddhism	43(19.5)
	Catholic	24(10.9)
	Other	10(4.5)
	None	106(48)
Grade	1	89(40.3)
	2	111(50.2)
	3	13(5.9)
	4	8(3.6)
Spending money (Ten thousand won/month)	≤ 20	38(17.2)
	21-30	78(35.3)
	31-50	80(36.2)
	51-80	6(2.7)
	81-100	13(5.9)
	101 ≤	6(2.7)
Min 20	Max 305	Mean±SD 41.26±38.25

Residential place	Home	90(40.7)
	Lodging or vestige	37(16.7)
	Dorm	86(38.9)
	Relatives home	8(3.6)
Concern in Parent Health	Not at all	9(4.1)
	Almost none	21(9.5)
	A little	89(40.3)
	Too many	102(46.2)
Health condition	Not at all	12(5.4)
	Almost none	51(23.1)
	Commonality	102(46.2)
	A little	36(16.3)
Health Promoting Behavior benefit	Not at all	9(4.1)
	Almost none	33(14.9)
	A little	105(47.5)
	Too many	74(33.5)
Difficulty in promoting health	Not at all	19(8.6)
	Almost none	63(28.5)
	A little	90(40.7)
	Too many	49(22.2)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Very good	47(21.3)
	Good	105(47.5)
	Commonality	35(15.8)
	Difficult	28(12.7)
	More difficult	6(2.7)

### 3.2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2.11±.34점으로 하위 영역인 건강책임 2.90±.42점, 대인관계지지 2.15±.47점, 자아실현 2.14±.44점, 스트레스 관리 2.13±.46점, 운동 및 영양 2.03±.38점 순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은 3.47±.67점으로 하위영역인 학업활동 3.67±.75점, 개인심리 3.51±.76점, 대인관계 3.42±.81점 사회체험 3.42±.83점, 진로준비 3.25±.79점 이었다.

취업전략은 3.24±.56점으로 하위영역인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정보탐색(자신탐색 3.44±.73점, 정보수집 3.30±.68점), 취업계획 3.36±.61점, 관리행동(시간관리 3.25±.75점, 학적관리 3.16±.76점, 이미지관리 3.25±.68점), 경력개발 3.12±.76점, 적극적 행동 3.04±.79이었다 [Table 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성별( $t=5.02, p=.026$ ), 연령( $F=3.00, p=.031$ ), 학년( $F=3.04, p=.030$ ), 건강상태

Table 2. Health Promoting Behavior,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Employment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N=221)

Categories	Item No	Mean±SD	Min	Max	
Total Health Promoting Behavior		99.31±16.35	63	144	
Health Promoting Behavior		2.11±.34	1.34	3.06	
Self-actualization	1,2,3,4,5,6,7,8,9,10,11	2.14±.44	1.27	3.09	
Health responsibility	12,13,14,15,16,17,18,19,20,21	2.90±.42	1.10	3.00	
Exercise and nutrition	22,23,24,25,26,27,28,29,30,31,32,33	2.03±.38	1.17	3.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34,35,36,37,38,39,40	2.15±.47	1.00	3.00	
Stress control	41,42,43,44,45,46,47	2.13±.46	1.00	3.00	
Total University Life Adjustment		65.99±12.82	35.00	95.00	
University Life Adjustment		3.47±.67	1.84	5.00	
Learning Activities	1,2,3,4	3.67±.75	1.75	5.00	
career preparation	5,6,7,8	3.25±.79	1.25	5.00	
Individual Psychology	9,10,11,12	3.51±.76	1.75	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13,14,15,16	3.42±.81	1.00	5.00	
Social Experience	17,18,19	3.42±.83	1.33	5.00	
Total Employment Strategies		110.35±19.37	69.00	170.00	
Employment Strategies		3.24±.56	2.03	5.00	
Employment plans	1,2,3,4,5,6	3.36±.61	1.50	5.00	
Information Search	Self-Exploration	7,8,9,10	3.44±.73	2.00	5.00
	Information collection	11,12,13,14	3.30±.68	1.75	5.00
Career development	15,16,17	3.12±.76	1.00	5.00	
Management Behavior	Time management	18,19,20,21	3.25±.75	1.25	5.00
	School register management	22,23,24	3.16±.76	1.00	5.00
	Image management	25,26,27,28	3.25±.68	1.75	5.00
Aggressive behavior	29,30,31,32,33,34	3.04±.79	1.00	5.00	

**Table 3.** Difference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Employment Strategi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Health Promoting Behavior		University Life Adjustment		Employment Strategies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Gender	Male	2.18±.36	5.02(.026)	3.55±.68	1.42(.234)	3.36±.63	4.54(.034)
	Female	2.07±.33		3.43±.66		3.18±.52	
Age(yr)	≤ 19 <sup>a</sup>	2.15±.34	3.00(.031) b<d	3.48±.70	.73(.533)	3.28±.57	2.12(.099)
	20-22 <sup>b</sup>	2.06±.34		3.74±.64		3.22±.56	
	23-24 <sup>c</sup>	2.09±.34		3.22±.67		2.93±.34	
	25 ≤ <sup>d</sup>	2.45±.39		3.73±.86		3.63±.81	
Religion	Christian	2.11±.41	2.11(.080)	3.50±.62	1.00(.410)	3.23±.57	.04(.997)
	Buddhism	1.99±.33		3.31±.73		3.25±.47	
	Catholic	2.24±.23		3.59±.54		3.28±.50	
	Other	2.17±.33		3.48±.67		3.25±.73	
	None	2.12±.33		3.47±.67		3.23±.60	
Grade	1	2.17±.33	3.04(.030)	3.47±.70	.07(.982)	3.23±.56	.10(.958)
	2	2.04±.35		3.46±.64		3.25±.57	
	3	2.13±.23		3.53±.67		3.17±.43	
	4	2.11±.34		3.51±.87		3.27±.79	
Spending money (Ten thousand won/month)	≤ 20 <sup>a</sup>	2.06±.32	1.40(.226)	3.49±.62	1.19(.317)	3.10±.54	2.66(.023) d>e
	21-30 <sup>b</sup>	2.13±.29		3.54±.67		3.30±.58	
	31-50 <sup>c</sup>	2.11±.37		3.40±.68		3.28±.53	
	51-80 <sup>d</sup>	2.42±.53		3.74±.51		3.48±.58	
	81-100 <sup>e</sup>	2.00±.45		3.53±.74		3.26±.63	
	101 ≤ <sup>f</sup>	2.08±.25		2.98±.83		3.57±.38	
Residential place	Home	2.15±.33	1.04(.376)	3.56±.64	1.31(.272)	3.30±.54	1.60(.190)
	Lodging or vestige	2.11±.31		3.47±.68		3.34±.58	
	Dorm	2.06±.36		3.36±.68		3.14±.56	
	Relatives home	2.12±.39		3.51±.85		3.24±.78	
Concern in Parent Health	Not at all	2.21±.34	.74(.531)	3.40±.55	1.16(.326)	3.14±.55	.78(.506)
	Almost none	2.16±.32		3.40±.54		3.08±.54	
	A little	2.07±.34		3.39±.63		3.25±.57	
	Too many	2.12±.35		3.56±.74		3.28±.57	
Health condition	Not at all <sup>a</sup>	2.40±.42	8.59(<.001) a,>b,c,d, b,c,d,<e	4.03±.72	10.81(<.001) a,>b,d, b,d<e	3.73±.79	6.05(<.001) b,d<e, a>c
	Almost none <sup>b</sup>	2.00±.30		3.17±.59		3.14±.44	
	Commonality <sup>c</sup>	2.09±.29		3.40±.64		3.19±.55	
	A little <sup>d</sup>	2.07±.30		3.56±.58		3.16±.57	
	Too many <sup>e</sup>	2.42±.25		4.08±.55		3.16±.57	
Health Promoting Behavior benefit	Not at all	2.20±.43	2.42(.067)	3.52±.72	2.72(.045)	3.44±.75	3.47(.017)
	Almost none	1.99±.28		3.26±.81		3.02±.49	
	A little	2.09±.33		3.41±.56		3.20±.54	
	Too many	2.17±.37		3.63±.72		3.37±.58	
Difficulty in promoting health	Not at all <sup>a</sup>	2.15±.30	1.18(.319)	3.16±.69	3.49(.017) a<d	3.31±.55	3.02(.031)
	Almost none <sup>b</sup>	2.09±.33		3.47±.64		3.21±.51	
	A little <sup>c</sup>	2.07±.34		3.41±.64		3.14±.53	
	Too many <sup>d</sup>	2.18±.38		3.69±.70		3.43±.67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Very good <sup>a</sup>	2.27±.33	9.85(<.001) c,b<e	3.73±.77	4.38(.002)	3.67±.55	12.51(<.001) a>c,d,e
	Good <sup>b</sup>	2.16±.34		3.49±.57		3.21±.51	
	Commonality <sup>c</sup>	1.89±.20		3.37±.62		3.07±.48	
	Difficult <sup>d</sup>	1.91±.27		3.08±.66		2.89±.39	
	More difficult <sup>e</sup>	2.17±.19		3.37±1.06		3.00±.86	

Post-hoc comparison=Scheffé' test

( $F=8.59, p<.001$ ), 환경변화적응( $F=9.85,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연령이 20세-22세보다 25세이 높았으며, 건강상태는 조금, 보통, 비교적 건강보다 매우 불건강, 매우 건강이 높게 나왔고, 환경변화적응은 매우 적응 잘함이 보통, 적응 잘함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왔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건강상태( $F=10.81, p<.001$ ), 건강증진행위 유의성( $F=2.72, p=.045$ ), 건강증진행위 실천 어려움( $F=3.49, p=.017$ ), 환경변화적응( $F=4.38, p=.002$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건강상태는 조금, 보통보다 매우 건강, 매우 불건강이 높게 나왔고, 건강증진행위 실천할 어려움이 어려움 없음보다 매우 어려움이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왔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전략에서는 성별( $t=4.54, p=.034$ ), 용돈( $F=2.66, p=.023$ ), 건강상태( $F=6.05, p<.001$ ), 건강증진행위 유의성( $F=3.47, p=.017$ ), 건강증진행위 실천 어려움( $F=3.02, p=.031$ ), 환경변화적응( $F=12.51,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용돈은 51-80만원이 81-100만원 보다 높았으며, 건강상태는 조금 불건강, 조금 건강 보다 매우 건강에서 높게 나타났고, 보통보다 매우 불건강에서 높게 나타났다. 환경변화적응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보다 매우 적응 잘함이 취업전략이 높았다[Table 3].

### 3.4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대학생활적응( $r=.437, p<.001$ ), 건강증진행위와 취업전략( $r=.536, p<.001$ ),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전략( $r=.615, p<.001$ )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Table 4].

### 3.5 취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취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767~.948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VIF 지수는 1.054~1.304 범위의 값으로 기준인 10 이하로 분포되어 있어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Watson test 검증치가 1.732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 산출된 회귀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적절하였으며( $F=55.005, p<.001$ ), 취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적응( $\beta=.464, p<.001$ ), 건강증진행위( $\beta=.283, p<.001$ ), 환경변화적응( $\beta=-.196, p<.001$ ), 건강상태( $\beta=-.110, p=.026$ )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9.7%이었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Health Promoting Behavior,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Employment Strategies (N=221)

Variables	Health Promoting Behavior r(p)	University Life Adjustment r(p)	Employment Strategies r(p)
Health Promoting Behavior	1		
University Life Adjustment	.437(<.001)	1	
Employment Strategies	.536(<.001)	.615(<.001)	1

Table 5.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ategies variable among nursing students (N=221)

variables	B	S.E	$\beta$	t	p	tolerance	VIF
constant	45.839	7.959		5.759**	<.001		
University Life Adjustment	.701	.082	.464	8.526**	<.001	.775	1.290
Health Promoting Behavior	.335	.065	.283	5.164**	<.001	.767	1.304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3.722	.970	-.196	-3.836*	<.001	.880	1.136
Health Condition	-2.160	.964	-.110	-2.240*	.026	.948	1.054

$R^2=.506$ , Adjustable  $R^2=.497$ ,  $F=55.005$ ,  $p<.001$ , Durbin-Watson 1.732

#### 4. 고찰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취업전략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취업전략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2.11점이었으며, 건강증진 하위영역에서 건강책임(2.90점), 대인관계 지지(2.15점), 자아실현(2.14점), 스트레스 관리(2.13점), 운동 및 영양(2.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 2.63점[23]으로 본 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하위영역에서 대인관계 지지(3.05점), 자아실현(2.98점), 스트레스관리(2.73점), 영양(2.52점), 운동과건강책임이 각각 2.22점 순이었으며, 보건계열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24]에서는 2.55점으로 본 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하위영역에서 대인관계지지(2.94점), 자아실현(2.90점), 스트레스 관리(2.41점), 운동 및 영양(2.31점), 건강책임(2.20점)과 본 연구와는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은 건강책임이 가장 높았으며, 유학생과 보건계열학생은 대인관계지지가 가장 높았다. 간호대학생들이 건강책임에 대해서는 높은 것은 전공 교과목과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자신과 가족,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 건강증진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잠재적인 직업관에 의한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간호대학생, 유학생, 보건계열 대학생들이 영양과 운동이 낮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전반적으로 영양과 운동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대학생들을 위한 영양과 운동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건강증진행위는 보다 더 높은 건강상태를 목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욕구충족을 위한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9]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3.47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 3-4학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 3.39점[3]과 거의 유사하게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질적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의 사회화 체험[25]에서 간호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인체의 신비를 경험하지만 과중한 학습 부담감, 치열한 경쟁과 한계상황 속에서 성숙 되어감을 경험에서 나타난 현상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론과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등으로 자신의 한계

와 타인과의 경쟁으로 대학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학년별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전략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에서 학업활동(3.67점), 개인심리(3.51점), 대인관계(3.42점), 사회체험(3.42점) 진로준비(3.25점)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에서 학업활동(3.80점), 진로준비(3.02점), 개인심리(3.59점), 대인관계(3.20점), 사회체험(3.34점)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들이 학업활동이 높은 것은 교과목 내에서 학업활동을 증진시키는 시뮬레이션 실습과 CPX, 표준화환자 등과 같은 임상상황을 재연형 실습을 병행한 수업을 강화한 결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전략이 3.24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3.69점[2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1-2학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취업에 대한 전략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며, 간호학과는 대부분 취업을 하므로 이와 관련된 맞춤형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성별, 연령, 학년, 건강상태, 환경변화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 연령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연령에서 20세-22세보다 25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적인 경험과 전공 관련 지식의 축적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상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주거형태, 전공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건강상태에서 나타난 결과 건강상태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 매우 불건강이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온 것은 건강하고자 노력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며, 매우 건강이 건강을 유지와 관리하기 위해 건강증진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변화적응은 매우 적응을 잘함, 보통, 잘함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왔다. 이는 환경변화에 따라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능력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실천 어려움, 환경변화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과 매우 불건강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건강상태는 ‘상’, ‘중’이라 대답한 학생이 대학



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건강상태가 좋은 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는 점은 일치하였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증진행위 실천 어려움은 어려움이 없음보다 매우 어려움이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 실천 어려움이 많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형태로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결핍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전략에서 성별, 용돈,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유익성, 건강증진행위 실천 어려움, 환경변화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성별, 학년, 전공, 성적 등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0]에서 연령, 학교성적, 성격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취업전략은 취업을 위한 계획단계부터 시작하여 취업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므로[14], 간호대학생의 취업전략과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직계획에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것[12]과 일치한다. 남학생들이 취업전략에 대해서 내용과 방법이 더 많이 알고 취업활동에 적용에 영향을 준다[29]고 하였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적극적인 성향과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취업전략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용돈은 81-100만원 보다 51-8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51-80만원에서 취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으로 취업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상태는 조금 불건강과 조금 건강보다 매우 건강이 높았는데 이는 자아실현을 하고자하는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보통보다 매우 불건강은 취업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을 회복하고자하는 잠재적인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변화적응에서는 환경변화적응이 높을수록 취업전략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사람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게 되는 조직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업전략은 조직환경 속에 들어가는 일련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

및 취업전략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증진행위과 대학생활적응( $r=.437, p<.001$ ), 건강증진행위과 취업전략( $r=.536, p<.001$ ),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전략( $r=.615, p<.001$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취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적응( $\beta= .464, p<.001$ ), 건강증진행위( $\beta=.283, p<.001$ ), 환경변화적응( $\beta= -.196, p=.001$ ), 건강상태( $\beta= -.110, p=.026$ )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9.7%이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은 건강증진행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전략이 높았고,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취업전략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전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행위, 환경변화적응, 건강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활적응, 건강증진행위 및 취업전략 프로그램 등의 운영지침과 비교과과정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에서는 건강증진행위,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전략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과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Y. H. Chung, N. S. Seo & S. H. Moon, "Related Factors in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Gender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12, no. 2, pp. 29-42. 2001.
- [2] Regina, L. T. Lee & Alice, J. T. Yuen Loke, "Health-Promoting Behaviors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in Hong-Kong." *Public Health Nursing*, vol. 22, no. 3, pp. 209-220. 2005. DOI: <https://doi.org/10.1111/j.0737-1209.2005.220304.x>
- [3] J. H. Choi, M. J. Park,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7, pp. 339-2013.
- [4] Baker R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1, pp. 179-189,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 [5]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 no. 3, pp. 267-276,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2.267>
- [6] J. W. Oh, & Y. S. Moon, "A Predictive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Nursing,"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391-403. 2014.
- [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86. World Health Organization web site : <http://www.who.int/en/> (accessed Oct. 30, 2016).
- [8] Pender N J.,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Appleton Century-Crofts. 1982.
- [9] Pender N J.,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2nd ed)", New York: Norwalk, conn, Appleton & Lange. 1996.
- [10] Walker, S. N., Sechrist, K. R. & Pender, N., "Health profi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Nursing Research*, vol. 36, pp. 76-81. 1987.
- [11] Lee J. Y.,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17.
- [12] H. J.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Employability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 on Employment Strategies," Department of Vocation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3.
- [13] J. S. Lee,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Major in Leadership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 [14] J. S. Yi,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 [15] Y. S. Kim, K. S. Lee,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vol. 7, no. 5, pp. 509-522, 2017.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5.33>
- [16] S. H.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78-86,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1.78>
- [17] S. J. Lee, H. C. Baek, "A longitudinal study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changes in health statu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8, no. 3, pp. 220-228, 2015.  
DOI: <https://doi.org/10.15434/kssh.2015.28.3.220>
- [18] J. 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2013.
- [19] Y. H. Kim,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and Employment Strategy on the Core Fundament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f Graduated Grad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pp. 363-372,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10.363>
- [20] Y. I. Han,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loyment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144-152, 2016.
- [21] Y. O. Seo. "Health Promoting Lifestyle, Hardiness and Gender Role Characteristics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2, no. 1, pp. 119-134. 199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3.144>
- [22]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no. 1, pp. 69-92. 2009.
- [23] J. H. Su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1, pp. 231-245, 2012.
- [24] H. J. Kwon, M. S. Jeon, H. Y. Kim, M. Y. Ham, M. S. Yoon, "Public Health College Student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Enneagram Personality Typ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1, No 5, pp. 2487-2499, 2009.
- [25] Y. H. Hong, H. K. Oh, Y.I. Han, "The Lived Socialization Experience of the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8, No 2, pp. 37-50, 2007.
- [26] D. Y. Park, M. J Kim,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Health Perception, and Self-efficacy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7, no. 6, pp. 561-570, 2017.
- [27] J. H. Park, E. H. Kim,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9, pp. 193-202,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9.193>
- [28] D. H. Kim, "The Effects of Ego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2017.
- [29] H. S. Park, "An effect of social support cognized by students on career strategy," Department of Vocation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2.

---

**한 영 인**(Young-In Han)

[종신회원]



- 1998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4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대한심폐소  
생협회 BLS Faculty
- 2014년 9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시뮬레이션실습, 간호전문직관, 심폐소생술

---

**김 정 미**(Jeoung-Mi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건강증진, 자살